

단기 선교팀 신청서

※ Team No : 2019-020

1. 신청 부서 : 청년부 연합 (팀명 : 몽골2팀)

2. 선교 국가 : 몽골

3. 사역지 : 울란바트타르외

4. 공 항 :

5. 사역 기간 : 2019년 07월 31일 (수) ~ 2019년 08월 06일 (화) - 6박 7일

선교위원회 확인

서기

지도목사

위원장

[서기]

[지도목사]

[위원장]
4/28

No	직책	직분	성명(한글/영문)	교구	지역	CMTC 1차2차	교적번호	생년월일	성별	전화번호	주소	E-Mail
1	팀장	사무 안수집사	정재영	15		○ ○	95-841					
2	총무		박예담	12		X X	2015-0117					
3	서기		김인애	13		X X	86-55					
4	회계		박용범	8		X X	2018-0200					
5	의료		정근모	15		X X	98-757					
6	팀원		김용욱	3		X X	2019-0046					
7	팀원		류현식	10		X X	92-247					
8	팀원		박예은	1		X X	2017-0064					
9	팀원		윤하림	1		X X	2018-0095					
10	팀원		이경찬	1		X X	98-1228					
11	팀원		이시온	8		X X	2016-0048					
12	지도	사무 목사	권혁근	1		X X	2017-0023					
13	부의료		김경현	9		X X	2012-0065					
14	부의료		김예림	6		X X	2001-0380					
15	부의료		박지인	6		X X	2003-0231					

※ CMTC 선교훈련 및 선교수련회는 출발 5주전까지 필히 수료하여야 출발할 수 있습니다.

※ 비자를 받는 팀은 여권과 함께, 비자를 받지 않는 나라는 여권을 COPY(B5 SIZE)하셔서 함께 제출하여 주십시오.

※ 사진은 반드시 6개월 이내이거나 여권과 다른 사진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 E-Mail Address는 팀장, 총무, 서기, 회계만 기록요망 [2019. 3. 양식변경]

담당

분과장

4/28
랑수안4/28
정재영

출력날짜 : 2019-04-28

[illegible]

선교 소감문

저는 이번에 몽골 선교를 다녀온 청년1부 류현식입니다. 작년에 몽골 선교를 다녀왔을 때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많이 남았던 선교였기에 다시 한번 몽골로 선교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부족했던 부분들을 채워서 가기 위해서 기도 제목으로 놓고 준비했습니다. 제 기도 제목은 선교를 준비하는 과정이나 사역을 하는 동안에 개인의 욕심과 생각들을 내려놓고 현지에 있는 영혼들을 먼저 생각하고 주님께 의지하기를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선교를 출발하는 당일에도 정말 많은 양의 비가 내려서 비행기가 뜰 수 있을까 라는 걱정을 했지만 체크인을 하는 사이에 비가 그친 것을 보고 감사함으로 사역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날 사역할 때 아이들이 진심으로 찬양을 따라하고 율동을 따라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감사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라 오래 서있는 것이 힘들었을텐데 율동까지 따라하는 모습이 너무 예뻐보였고 그 덕에 저도 더 열심히 찬양하고 율동을 따라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프로그램들을 아이들이 재밌게 참여해주고 말씀에 관한 퀴즈들도 열심히 잘 맞추어서 뿌듯했습니다. 이번 선교는 날씨에서 감사함을 계속 느낄 수 밖에 없는 선교였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 많았는데 어린이 사역을 진행하는 동안에는 비가 오지않고 사역을 마치고 나니깐 쏟아지는 비를 보고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내시려고 저에게 마음을 주신 것이었구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크고 작은 어려움이 많았지만 그 상황안에서 최고의 상황으로 풀어주시고 그 이후에 사역들에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가득 찬 상태로 진행되었습니다. 저만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끝나지 않고 현지에 있는 아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더 궁금해하고 알아가기를 원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사역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난 영혼들 하나하나 기억하며 기도할 수 있는 몽골 선교팀 되기를 원합니다.

7/31일부터 8/6일까지 몽골로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선교를 준비하는 과정부터 모든 것이 순조롭지만은 않았습니다. 어린이사역이 아니라 의료사역을 준비하게 되면서 구체적인 사역들을 준비할 필요가 없게 되면서 제 마음이 안일해져 있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출발할 때부터 완전히 준비되어져서 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기도할 때는 '주님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주님 일하심 의지하고 신뢰하며 사역하게 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지만, 실제로 제 안에는 저의 계획, 저의 생각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당신의 계획을 보이시고 감히 헤아릴 수 없는 그 헤아림을 보이실 때에 반발심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번 선교는 물론 은혜롭기도 했지만, 주님이 나의 완악한 생각들을 깨뜨려 주신 선교입니다. 내 멋대로 판단했던 것들, 내 마음대로 정했던 것들이 사실은 틀렸음을 절실히 깨닫고 돌아왔습니다.

선교지에서 팀원들 간에 서로 힘들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 가운데에 놓여지게 되었고, 그래서 너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사역들이 걱정되었고, 두렵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셨고, 저희가 더욱 하나되어서 더욱 사역에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겪으면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한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평가회와 경건회는 정말 영적으로 채워지는 순간순간들이었고, 무엇보다 같은 방을 쓴 지체들과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 기도제목을 나누어 함께 기도한 그 시간들이 참 은혜롭고 귀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고 기도하면 영적으로 깨어있고 채워진 느낌이 가득했습니다. 나를 깨뜨려주시고, 선교팀이 힘든 상황 가운데에 놓여졌을 때에 주님의 말씀을 찾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다면, 아마 나의 완악함을 깨뜨려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선교팀 힘든 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고백은 절대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몽골에 다녀온 그 모든 순간들 속에 단 하나도 나의 힘으로 한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보내 주시고 너무나도 부족한 저를 들어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경현

'하나님의 크신 계획은 완벽하시다'

선교를 가야겠다고 마음먹은 것 부터 다녀온 이 순간까지 모든 시간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걸 느꼈습니다.

선교를 신청하게 된 계기는 한규삼 목사님의 '나가서 말씀을 전하는것은 선택이 아닌 의무'라는 말씀을 듣고 난 후였습니다. 그래서 제 스스로 선택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선교를 가니 제 오만이었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몽골땅에, 이 곳에 제 작은 손이 필요해서 주님이 부르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번 선교는 사실 성인이 되고 난 후 처음으로 가게 된 선교였습니다. 기대하는 마음도 컸고 두려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저는 의료팀으로 지원을 했었기 때문에 크게 할일은 없다고 말씀해주셔도 뭔가 하나를 더 준비하고 싶고, 더 많은걸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환으로 보건교육도 하고, 치약 칫솔도 나누어주자 하는 얘기가 나와서 직접 만들며 열심히 준비도 했습니다.

판에는 열심히 준비한 뒤 사역지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사역지에서는 의료팀 준비할때 각자 역할을 분배한 뒤 시작을 했기때문에 막힘없이 수월하게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날에 시내 학교에서 사역을 했는데 이백명이 넘는 환자들을 만났습니다. 그 환자들을 만나면서 사실 너무 기계적으로 움직이며 말씀을 전하는 순간이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자 이 곳에 왜 와있는건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함께 하는 사역자들과 나눔을 통해 아주 작은 손길이지만 그 손길이 합쳐지고 더해져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정말 크신 일을 하실 것이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의 사역지부터는 몽골에서 만나는 한 사람 한사람이 너무 귀한 영혼이고 소중하다는 생각을 하며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이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를 전하며 그 곳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시기를 기도했습니다.

또한 사역을 하는 동안에 만난 사람들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사역날에 게르를 설치해 의료진료를 보았기 때문에 접수하는 테이블과 대기하는 자리 모두 밖에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의료팀이 점심을 먹으러 간 사이에 비가 왔었습니다. 당연히 저희는 사람들이 기다리지 않을거라고 생각했고, 돌아가면 철수하자고 말하면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다르게 많은 사람들이 비를 맞으며 의사 선생님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비를 맞으며 진료를 부탁할만큼 상황이 어려운 상환인가 싶으면서, 오랫동안 묵혀둔 상처를 보여줄때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우리의 한마디가, 그들에게 '이 사람들이 믿는 예수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하는가?'라는 의문이 들어서 예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는 정말 작은 일을 했지만 이후에 하나님이 하실 크신 일이 다 계획되어 있고 몽골 땅에도 복음이 널리 전파될 이후의 일을 기대합니다.

선교소감문 김예림

저에게 이번 일주일간의 몽골 선교를 한마디로 요약해보자면 사랑 그 자체였습니다. 사실 저는 이번 몽골 선교를 작년에 이어 연속적으로 두 번째 떠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작년과 비슷할 거라는 안일함, 또 제 삶에 너무 집중하느라 제 스스로가 선교사역을 준비하는 데에 있어서 너무 소홀한 경향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부족한 점만 가득 안고 떠난 이번 선교는 저에게 있어서 매 순간순간이 감정싸움의 시간이었으며, 사탄이 틈타려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방법과 다른 방식으로 사람들이 반응할 때 팀원들에 대한 마음, 몽골 영혼들에 대한 마음 그 모든 것이 서운함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매 순간순간 그 감정과 싸워야 했고, 사탄이 저를 무너뜨리려 했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으려고 무던히도 노력했습니다.

사역지에서 저희 방 룸메이트들끼리 매일 밤 말씀을 묵상했는데, 에베소서 말씀을 묵상하며 저는 그 말씀이 너무도 저에게 와 닿는 부분이 많았고, 특히나 사랑 없는 저의 모습을 너무도 보게 하셨습니다. 제 스스로가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느꼈던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누리지 못하고 있었으며, 몽골 영혼들과 우리 팀원들을 사랑하려는 마음이 너무도 적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른 영혼들보다도 저는 제가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제 상황에만 집중하기 바빴고, 함께 옆에서 고생하고 있는 팀원들과 섬기려고 온 몽골 땅의 영혼들에게 사랑을 줄 마음이 너무나도 적었습니다. 이렇게나 사랑 없던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회복시켜 주셨고, 저를 사랑한다 말씀해주셨으며, 영혼들을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그를 통해 저는 낮아질 수밖에 없었고, 나는 할 수 없었으며, 하나님이 다 하셨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선교는 생각해보면 떠나기 전부터 보내는 선교사님들의 후원을 너무도 많이 받고 갔었습니다. 떠나기 전부터 이렇게나 주변에서 사랑의 손길들이 많았었는데, 저는 그것조차 모르고 갔었고, 그래서 선교지에서도 너무 철저하게 깨졌었지만, 다시금 일어나게 하셔서 저에게는 매일매일이 너무도 감사가 넘치는 하루하루였습니다. 이번 선교를 위해 함께 기도해주신 많은 충현의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이 선교를 준비하는 순간부터 끝까지 함께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립니다.

김용욱 선교 소감문

내가 이번에 간 2019년 몽골 선교는 인생에서의 첫 선교였다. 내가 선교를 가기로 결심한 이유는 해외 교회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무엇인지 느껴 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린이들에게 복음전파가 가능하다고 해서 그곳의 어린이들과 놀아줄 생각으로도 가기로 했다. 선교준비는 가기전 2달 반 정도 했는데 선교준비 하면서 느낀점은 선교 7일을 가기위해서 정말 준비할 게 많다는 것이었다. 매주 토요일에 모여서 같이 기도와 말씀을 읽고 cmtc에서 선교에 관한 정보도 들어야했다.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간것은 선교 1달 전 부터였고 이때부터는 선교지에서 어린이들에게 무엇을 할찌에 대해 본격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선교지에 방문하는 어린이들은 수백명이라고 해서 만들기를 하나 준비하려고 해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하지만 팀원들과 청년1부 교인들이 모여 같이 준비를 도우니 무사히 준비를 마칠 수 있었다. 정말 그때 도와준 분들에게 감사를 느꼈다.

몽골은 6박 7일동안 방문을 했지만 실제로 사역을 하는 날은 4일이였다. 사역 첫째날인 몽골충현교회에서는 건물 시설이 좋아서 준비한 프로그램을 무리 없이 진행을 할 수 있어서 좋았다. 어린이들도 처음에는 조용했지만 찬양율동에 잘 따라와 주는 모습을 보고 나도 기뻐다. 둘째날 갔던 기묘자교회는 몽골의 초원을 한참지나 나오는 오지에 있는 교회였다. 가는 길에 몽골의 대자연을 제대로 구경할 수 있었다. 나는 둘째날 사역이 가장 좋았는데 기묘자 교회는 사역을 갔던 4군데의 교회중 가장 어린이들과 직접 교류를 쉽게 할 수 있던 곳이었기 때문이다. 덕분에 “아난다”라는 어린이 친구랑 많이 놀았다 공놀이며 만들기며 참 많은 것을 해서 좋았다. 셋째날 갔던 교회는 교회는 작는데 사람들이 참 많이 왔다. 그래서 준비한 것은 많이 진행하지 못했지만,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몽골 주민을 보며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지켜 볼 수 있었다. 사역 마지막날 갔던 교회의 가장 인상깊었던 일은 그곳은 오후엔 전기가 안들어와서 전기가 필요 없는 일을 해야하는데 때마침 밖에는 비가오고 어두운 실내에서 어린이 친구들과 찬양율동을 같이 한것이다. 다들 정말 잘 따라와 줬다.어린이들과 오래 못 논것에 대해 아쉬움이 남았지만 기회가 되면 내년에 다시 한번 가보고 싶었다.

몽골2팀 김인에 선교소감문

이번 선교를 준비할 때부터 나는 너무나도 지쳐있었다. 내가 예수님과 관계가 온전하지 않아서인지 선교준비를 수동적으로 하게되고, 선교를 향한 열정은 온데간데 찾아볼 수 없었다. 예수님을 향한 갈망부터가 내 안에 없었고 그런 상황가운데 선교준비를 시작해나가려니 너무 힘들고 벅차다고 느껴졌던 것 같다. 능동적이지 못한 우리 선교팀의 분위기와 모습이 만족스럽지 않았고 그것에 너무나도 크게 영향받고 있는 연약한 내 모습도 싫었다. 계속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런 마음과 생각으로 선교를 준비해도 되나?” 그리고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되물었다. “선교를 감히 이렇게 준비해도 되는거야? 너가 선교사인데 이런생각과 이런마음으로 선교를 준비할 수 있어? 몽골 땅을 향해 마음 아파하고 소망과 기대를 품고 나아가야하는 거잖아.” 그런 질문과 고민을 해나가며 해답없이 선교준비를 해 나갔었다. 예수님 사랑을 내가 먼저 충만히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했었다. 내 마음과 신앙이 연약해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신을 갖고 있었던건, 내가지금 몽골 땅을, 예수님을, 선교팀원을 사랑하지 못함을 예수님께서서는 사랑하도록 만드실 것이라는 것이었다.

선교지에 나아가서는 더욱 더 민감하게 영적전쟁을 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문제가 될 것이 아닌데도 문제처럼 느껴졌고, 사소한 것 하나에 마음이 연약해 무너지곤했다. 선교 중 룸메이트 사람들과함께 매일 에베소서 말씀을 읽었다. 그 날 하루를 돌아보며 말씀을 통해 묵상한 것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정말 너무 은혜가 되는 시간이었다. 그 날 나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을 알고 말씀을 통해 회복하고 마음을 다시 잡고 그 다음날 하루하루의 사역을 감당했다. 그 전날의 말씀이 그다음날의 하루 사역을 감당하게 하고 또 무너졌을 때 그 하루의 말씀이 그 다음날을 살게 했다. 말씀을 붙들지 않고서야 하루하루를 버틸 수 없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심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선교를 누릴수 있게하셨다. 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누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바라고 가장 중요한 가치로 두고 살아가는 나인데, 요즘들어 그 기쁨을 잊은 채 살아왔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선교지에서 선교를 향한 나의마음을 다시 세우시고, 그리고 감당하는 어린이사역을 기쁨으로 채워주셨다. 어떠한 문제가 해결되거나 갑자기 좋은 일이 일어난다거나 해서 기뻐던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을, 채워짐을 경험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다. 그리고 이 감사를 룸메이트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것도 너무 감사했다. 처음에는 정말 교만하게 내가 선교지에 나아가 섬기고 봉사하고 사랑을 주고온다고 생각했었다. 그리고 그 사역을 잘 감당케 해달라고 기도하고 나의 영적인 상태에 있어서 어떤 기대를 할 수조차 없었던 것 같다. 하지만 이번 선교는 정말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충만히 느끼게 되는 회복의 시간이었다. 내가 아이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리고 그 곳에서 예배하는 성도를 보며 그 땅가운데 말씀 전하시는 목회자 분들을 보며, 그 땅의 영혼 한명한명을 보며 내가 도전받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 몽골 땅을, 또 이 곳에 부르신 나를 사랑하시는 지를 느낄 수 있었다. 특별히 에4:27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얼마나 많은 틈을 보이며 사역해오고있었는지를 돌아볼 수 있었고 매일매일 순간순간 절대, 다시는 틈을주지 않을거야라고 다짐하고 무장하며 선교사역 해 나갔던게 기억에 남는다. 선교를 다녀와서도 에베소서 4:30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말라. 라는 말씀을 되새기곤한다. 나의 죄악된 생각과 마음 그리고 행동으로 인해 성령님께서 얼마나 아파하고 계실까? 주어진 나의 오늘 하루는 절대, 절대 내 안에계신 성령님을 낙심하게 하지 않을것이다!!

몽골2팀 박예담

저는 이번에 몽골선교팀 총무를 맡았던 96동기 박예담이라고 합니다

매번 선교를 준비하면서 느끼는 것은 시작부터가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더 크신 계획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제 생각은 입대 전 마지막 선교였으나 끝나고 돌이켜보니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였습니다 17명이나 되는 큰 팀에 총무로써의 역할을 감당하기 힘들다고 생각했으나, 저 혼자 하는 선교가 아닌 각자에게 부여하시는 지혜가 다 다르듯 다같이 하는 선교로써 공동체의 중요성을 더 깨닫고 감당이 아닌 기쁨으로 채워주신 선교였습니다 몽골에 갔을 때 지구 반대편에도 내가 믿는 하나님의 또 다른 백성들이 있다는 사실에 그리고 아이들이 2시간 걸리는 거리더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듣기 위해 또 치유받기위해 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지에서는 우리들의 생각대로 되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매번 머리를 싸메야 했고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의 조그마한 부분을 따라한 것 뿐이지만 그럼에도 기뻐던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랑을 받지만 사랑을 줄 수도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지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려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모두 이행할 순 없지만 어려운자를 위해 낮아지신 주님, 병든 자를 돌보시는 주님, 아이들을 예뻐하셨던 주님을 기억하며 복음의 씨앗이 그 곳에 뿌려져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나중에 천국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저희 선교팀과 몽골땅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몽골2팀 청년부 박예은

대학교 3학년, 다양한 많은 경험들을 하고 싶었고, 남들 다가는 해외여행 한번 못가 선교가 제격이라 생각이 들었다. 선교 준비기간 동안 어린이 사역을 준비하면서도 복음을 들고 가는 마음은 딱히 없었던 것 같다. 그냥 일이었고, 우리가 준비한걸 아이들에게 보여줄 생각에 기대가 되었다. 첫날은 내가 해외에 왔음에, 또 몽골을 왔음에 마냥 들떠있었던 것 같다. 나는 호텔에서 507호를 썼는데, 밤에 말씀을 나누자는 얘기가 나왔다. 하루에 한 장씩 읽고 나누면 어떨까 싶어 6장 까지 있는 에베소서를 나누게 되었다. 그렇게 우리는 매일 밤 에베소서 말씀을 나누었다. 둘째 날 우리는 미리 사역지를 둘러보고 징키스칸 광장을 둘러보았다. 사람들과 지내다 보니 관계적인 부분에서 연약한 나를 보게 되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렇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상처를 받았었다. 부족한 나의 모습을 보면서 배워야 할 것도 많다고 느꼈다. 하지만 다시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을 통해 연약한 우리를 보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 영적으로 재정비 하는 시간을 가졌다. 셋째 날은 몽골 충현교회를 갔는데 개인적으로 아쉬운 날이었다. 생각해 보니 내가 준비를 많이 했는데 왜 이것밖에 안왔지라는 아쉬운 마음, 좀 더 적극적이었음 했는 아이들의 반응 등 첫 사역에 대해 아쉬움이 컸다. 또한 이 날은 마귀가 팀원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있었다. 오늘 이 사람, 내일은 이 사람. 관계 속에서 겪는 어려움들이 컸다. 성령 하나님과 인간 박예은이 충돌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지키게 하셨다. 서로 배려해주고 있는데 너무 나만 배려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그러나 다시 말씀을 통해 엄청난 은혜를 받게 하셨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깨닫고 싶다는 기도제목이 생겼다. 나의 모든 음악이, 연주가, 사역이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나타내고 드러났으면 하는 소망이 생긴 날이었다. 넷째 날은 기묘자 교회를 갔다. 교회를 가는 길이 off road 였는데 멀미 안하고 갈 수 있음에 참 감사했다. 넓은 초원과 말을 보는 것은 또 다른 힐링이었고, 감사였고, 경이였다. 교회를 가보니 마당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교회 안에서 아이들과 같이 사역했다. 방이 너무 좁아, 아이들도 많이 없어 실망(?)하기도 했지만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대신, 천지창조복을 읽히게 하면서 색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었다. 어찌다보니 인애랑 인형으로 전도시범처럼 상황극을 했었는데 영접 기도할 때 아이들이 따라해서 너무 감동이었다. 교회 앞에서 초원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버스킹 시간이 있었는데 너무 감격과 은혜가 있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을 보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시간은 잊지 못할 경험이었다. 그러나 은혜가 큰 만큼 마귀도 우리 팀을 흔들어 놓고 있었다. 에베소서 말씀에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라는 말씀은 소름 또 소름이었다. 공동체에서 각자의 연약함을 보게 된 하루였고, 말씀으로 다시 서게 된 하루였다. 다섯째날은 제대로 마귀에게 걸려 넘어진 날이었다.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게 되었고 마음이 힘들었다. 사역을 감사하게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마음은 요동치고 있었다. 선교를 아무 생각없이 온 것이 처음으로 후회한 날이었다. 다음 선교는 정말 기도로, 말씀으로 제대로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여섯째 날, 어떤 아이가 '예수 사랑하심'을 부르는데 후렴 부분에서 '날 사랑하심' 하고 아멘 하는 것이었다. 너무 큰 감동이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참 힘이 있다. 부족하더라도, 부족한 만큼 내 마음이 진실되게 하나님께 향해있으면 그것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이자 자유함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선교를 통해 나의 연약한 모습이 한 없이 보였다. 정말 느낀 것은 내가 죽는 법을 선교를 통해 조금 배운 것 같다. 내 중심, 내 감정이 최우선이었다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일에 더 신경쓰게 되고, 성령님의 은혜를 입은 '나'로 조금이나마 살아왔다는 것이 큰 은혜였다. 선골르 통해 경험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감사, 찬양과 예배는 잊기 어려울 것 같다. 처음에는 기대도 준비도 안했었지만 선교내내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셨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좋은 시간들이었고, 무기력한 삶이 아닌 매일매일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다짐하는 시간들이었다. 삶의 목적과 방향성을 다시 재정비한 귀한 시간들이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

몽골2팀 청년부 박용범

이번 선교를 준비하는 기간동안 나는 여러가지 부담감을 안고 시작했었다. 일단 생애 첫 선교이면서 회계 직을 맡은 것에 대한 부담감이 매우 컸다. 워낙 성격이 차분하던지 꼼꼼하지 못한편이라 혹시나 사역비 관리에 차질이 생길까봐 걱정이었다. 그리고 몽골어로 찬양가사를 외우는 것이라던지, 형제들 중 가장 많은 나이인것도 조금은 부담이 됐었던 것 같다.

그러다보니 정작 가장 중요한 복음전파는 사역을 준비하는 동안 나에겐 뒷전이었던 것 같다. 각자 맡은 직책과 사역이 무엇이건 이번 몽골의 영혼들이 예수님을 알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생각해야할 부분이었는데 나는 오로지 사역비 관리, 찬양가사 외우기 등과 같은 부차적인 목적에만 집중했었다.

그러나 세번째 현지교회 사역날, 즉 초원의빛 교회에서 헌당예배를 드리는 날, 여러 사정으로 인해 일정에 차질이 생겨 계획과 다르게 예배 전 찬양이 길어지고, 예배후에도 찬양을동팀과 함께 급하게 찬양을 하는 일이 생겼었다. 날씨도 많이 덥고 이미 피로가 많이 누적된 터라 찬양을 하고 어린이사역을 하는 동안 나는 그저 힘들고 지쳤고 기쁘지 않았다. 그러다 문득 '기뻐하며 왕께'를 찬양하던 도중 '내가 기쁘지 않은데 이 찬양을 부른다는 게 말이 되는가' 라는 생각이 들었다. 동시에 다른 찬양을 할때나 아이들과 같이 어떤 활동을 할 때에도 나는 진심으로 그들을 대하지 못했었던 기억이 들게 되었다.

그동안 선교를 준비하고 몽골에 넘어와 둘째날까지 몽골에서 사역을 하는 동안 나는 모든 일정과 사역을 단순히 '일'로 보았지, 전심으로 주님을 알리고자 힘쓰지 않았던 것이다. 되도않는 몽골어로 아무 감정없이, 고민없이 그저 박자맞추기에 급급한 찬양을 주님이 예비하신 영혼들 앞에서 했다는 생각이 들자 스스로가 한없이 부끄러웠다. 그리고 비록 마지막으로 남은 하루라도 정말 전심으로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며 찬양하고 사역하기로 마음 먹었다.

마지막 사역날, 찬양을 시작하기 전 분주한 마음을 내려놓고 진정으로 찬양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짧게 기도를 하고 찬양을 시작했다. 그러자 그동안 눈에 보이지 않던 풍경이 보였다. 아이들이 열심히 울동하고 가사를 보며 어떻게든 따라부르려 노력하는 모습이 보인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말 신나게 찬양하는 아이들을 보며 나도 덩달아 신나게 찬양했던 것 같다. 아마 선교사역중 처음으로 기쁘게 찬양한게 아닌가 싶다. 그리고 아이들과도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단순히 놀아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 대 사람으로 교감하려고 노력했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했고 동시에 나 또한 채워짐을 얻었다.

선교를 마치고 돌아온 지금 사실 이런저런 걱정때문에 사역에 온 정신을 쏟지못한 게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든다. 좀 더 말씀과 기도로 선교를 준비하지 못한 것이 아쉽고 내 뜻과 의지로 무언가를 행하려고 한것도 많이 아쉽고 나의 영적 부족을 많이 느끼게 된 선교였던 것 같다. 다음에 다시 주님이 나를 선교사로 세워주신다면 올해의 경험을 바탕으로 좀 더 나은 준비를 할 수 있을것 같다.

2019.07.31.~2018.08.06. 몽골 청년1부 선교팀 - 94박지인

선교가 처음이었기 때문에 선교에 가기 전, 내가 왜 선교를 결심하고 나아오게 되었는지 생각해보았다. 원래 남들과 같이 자는 일이 너무 싫고, 내 구원 말고는 관심이 없던 내가 선교를 결심하게 된 것은 작년에 대학원에서 수업을 듣다가였다. 한국교육의 전반적인 설명을 들을 때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하게 된 부분에는 선교사들의 의료선교와 교육선교가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교수님은 그리스도인은 아니었지만, 지금 신천지나 다른 여러 사이비들이 그와 같은 방식으로 외국에서 포교활동을 한다는 말씀을 덧붙였다. 심지어 통일교도들은 한국으로 성지순례를 오며, 다문화가정의 15퍼센트 정도가 통일교로 인한 다문화가정임을 알게 되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이 비진리를 전할 때 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때 선교를 결심하게 되었다. 그들이 진리를 접하기 이전에 비진리를 접하는 것이 애통했고, 이미 그런 이야기를 알게 된 이상 가만히 있는다면 나는 분명히 죄책감에 시달렸을 것이기 때문이다.

선교를 준비하고 떠나는 시간까지 걱정과 불안감만 가득했다. 그리곤 도착한 바로 다음날 횡단보도에서 소매치기를 당했다. 핸드폰을 가방에 넣어뒀는데 고작 3분 만에 가방은 열려있었고 핸드폰은 사라졌다. 부모님도 지금 러시아에 계셔서 한국에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고, 다른 집사님의 도움으로 휴대폰은 정지 시켰다. 처음에는 막막함이 앞섰지만 달리 내가 무엇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내 삶 속에 수많은 시간을 핸드폰 보는 것으로 보냈기에 당황스러웠다. 그렇게 내 선교지에서 하나님은 사역에 더 집중할 수 있게 하였고, 하나님에 대해 더 생각하게 하셨다. 그 후 핸드폰이 없던 일주일동안 나조차도 이유를 알 수 없는 평안함을 주셔서 불안이나 불평 없이 선교를 감당할 수 있었다.

사역은 총 4일, 의료팀은 의선부에서 오신 집사님들과 함께 의료사역을 진행했다. 의선부에 의사선생님들과 약사선생님들이 진료와 처방을 해주실 때, 그 사역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가적인 업무를 맡았다. 그중 나의 업무는 차트지를 쓰기 전까지의 줄 세우기, 처방 받은 후 나가는 사람들에게 치약, 칫솔과 손 씻기, 양치하는 방법이 적힌 안내표 나눠 주기였다. 첫날부터 214명이라는 많은 영혼들이 왔고, 내가 맡은 것들을 감당하기도 벅차 말씀을 전할 시간이 너무 부족했다. 그래도 함께 몽골 선교를 오신 교구 권사님들께서 노련하게 줄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고, 입구에서 찬양을 부르셨다. 바쁜 가운데 들려오는 찬양 소리가 너무 반가웠고, 각자의 사역을 감당하지만 이러한 부분이 합심하여 선을 이루는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둘째 날은 의선부와 청년1부만 기묘자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했다. 의료팀이 의선부와 의료사역을 진행했고, 어린이사역팀은 진료를 보러 부모님을 따라 온 아이들을 놀아주고 오후엔 밖에서 찬양을 불렀다. 전날은 어린이사역팀과 사역 장소가 달라 함께 간 청년1부 지체들을 볼 기회가 없었다. 이날은 함께할 수 있어서,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을 채워주는 그들을 보며 은혜 받고 어린이를 향한 그들의 마음을 본받을 수 있었다. 내가 나의 맡은 일을 충실히 한다면 내가 감당하기 힘든 부분은 하나님께서 다른 이를 통해 그분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겠구나, 깨달았다. 그 덕에 남은 두 날은 다른 쓸데없는 걱정을 버리고 내가 맡은 것을 더 생각했던 것 같다.

선교지에서 돌아온 지금, 하나님의 구원을 더 열심히 말하지 못한 것이 많이 아쉽다. 하지만 나와 함께 간 다른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믿음의 씨앗이 뿌려졌음을 분명히 기대한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여서 일할 수 있었고 행복했습니다!

2019.07.31.~08.06 몽골선교 윤하림

2019년, 21살이 되어서야 드디어 부모님 없이 제 첫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이번 선교는 저한테 더할나위 없이 큰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선교지에 가기 전까지만 해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선교를 신청할 때와 달리 마음속에 재정이나 관계 등의 인간적인 고민들이 많았고, 선교가 아닌 봉사활동처럼 중심에 주님이 없는 않을까 고민했습니다. 내가 죽고 그가 살아서 주님을 전파해야 하는데 내 안에 이미 내가 너무 큰 것 같아 준비되지 않았다는 두려움이 컸습니다.

이런 나를 위해서 주님은 참 다양하게 일하셨습니다. 우선 저희를 더욱 깨어있게 하시도록 507호를 같이 머문 룸메들과 함께 에베소서를 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 앞서 먼저 내가 내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는지,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는 이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지를 끊임없이 물어보셨습니다. 또 내 안에 어려움에 갇혀 속이 상할 때 늘 나의 위로가 되셨습니다.

이렇게 선교를 다녀오니, 정말 분명하게 느낄 수 있었던 것은 나의 첫 선교는 나를 위한 선교였다는 것입니다. 이번 선교를 통해서 저는 주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위대하심이 경험되어지고 아주 작은 자도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깊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찬양 울동을 하면서 내 몸안에 퍼지는 감사가 저를 아이처럼 신나게 만들어주었습니다. 찬양의 기쁨이 깨달아졌습니다. 영혼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사역하는 즐거움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모든 상황, 계획 속에서 주님이 이끄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몽골 땅 아이들을 생각하며 선교를 떠났지만 그 안에서 날 향한 주님의 계획이 분명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더욱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는 마음도 생겨났던 것 같습니다.

몽골2팀 청년부 이경찬

선교를 많이 갔었지만, 몽골이라는 나라는 처음이였고, 노방전도만 하다 어린이 사역을 처음 맡게되어 기대와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역을 준비하며 팀원들과 함께할수 있는 시간이 적어 개인적으로 팀원들과의 친교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선교가 다가올수록 기대보단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역지에 도착하고 나니 사역을 하면서 팀원들과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사역지에서 팀을 위해 기도했던 가운데 저희의 부족을 공급해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었던것같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또한, 어린아이들과 함께 천지창조에 대한 프로그램을 할때 걱정은 하나도 없이 그 친구들에 대한 희망과 소망만 가지며 사역할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그 몽골 친구들 하나하나를 통하여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길 소망합니다.

선교보고서

이시온

2019년 7월31일 저는 몽골 울란바토르로 2번째 선교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몽골의 도착하였을 때 날씨는 굉장히 선선하여 사역을 하는데 있어 더위와의 싸움을 피할 수 있어 한시름 놓았습니다. 숙소를 향해 버스를 타고 가며 저는 창문 밖을 내다보았지만 한국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교회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아직 몽골 땅에는 복음의 씨앗들이 많이 퍼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과연 내가 언어도 안 통하는 낯선 땅에서 하나님을 잘 전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며 잠들었습니다. 둘째날 우리가 전도할 교회들을 둘러보러 갔는데 저희가 본 교회들의 상태는 전기도 잘 통하지 않고 천장이 매우 낮아 있으며 매우 열악해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장소가 열악하더라도 아이들의 한 영혼, 한 영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교회라는 것을 곧 깨닫게 되었습니다. 셋째날 드디어 첫 어린이사역을 하였습니다. 처음으로 몽골 어린이들과 같이 하나님께 찬송과 율동을 했고 아이들과 함께 놀면서 서로 교감도 하였습니다. 아이들은 한없이 순수하였으며 얼굴에는 미소가 넘쳤습니다. 아이들을 보고 있으면 저도 행복해졌으며 저도 기쁜 마음으로 천지창조 복을 가르쳐 주고 함께 만들면서 끝이 났습니다. 넷째날은 어제같이 선선한 날씨가 아닌 좀만 걸어도 땀이 나는 기후였으며 어제같이 넓은 실내가 아닌 비좁은 방 2개였다. 우리는 시작도 전에 이 상황에 큰 고민에 빠졌다. 준비해 온 것을 모두 해줄 수 없을뿐더러 아이들이 많이 와버리면 어떻게 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2방에 적당히 찰 정도에 아이들을 불러주셨고 아이들이 떠나고 나면 또 그만큼의 아이들을 불러 주셨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가 아닐까? 생각하며 오늘 하루 사역이 끝났다. 다섯째날은 일요일이며 총동원 주일이다. 우리는 예배 때 선교를 떠날 당시 마음가짐으로 '우리를 사용하소서' 라는 특송을 불렀습니다. 예배를 마친 후 우리는 준비해온 모든 것들을 몽골 어린이들에게 보여주며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몽골언어를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우심을 전부 말해줄 수 없던 것이 아쉬웠습니다. 마지막 날 우리는 교회로 떠나면서 우리가 선교를 준비한 것들이 엿그제 같은데 벌써 몽골에서 마지막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이 놀라우면서 한편으로는 '조금만 더 준비할걸, 조금만 더 아이들과 소통할 수 있게 언어를 공부할걸'이라며 아쉬움도 생겼습니다. 교회에서 사역을 하던 중 점심식사 문제로 저희는 아이들을 다른 교구팀에게 맡겨 두고 밥 먹으러 떠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전부 집으로 떠나버리는 걱정을 하며 늦은 점식을 먹고 다시 교회로 갔습니다. 우리의 걱정과는 다르게 아이들은 천진난만하게 웃으면서 우리가 놓고 간 밧줄로 줄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아이들에게 달려가서 함께 놀려고 하였지만 야속하게도 시간과 날씨는 모두 저희의 바램과는 반대되는 상황을 주었습니다. 갑자기 날씨는 먹구름이 몰려와 비가 내렸고 시간은 점심식사로 너무 소요되어 의료팀이 철수하는데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후회할거 같았습니다. 저희는 아이들을 실내로 불러 함께 찬송하며 율동을 하였으며 천지창조 일러스트 또한 모두 무사히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렇게 사역을 종료하며 아쉬움과 기쁨을 가진채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어떤 무언가 보다 선교를 마음먹게 하셔서 모이게 하셔서 하나님을 전하게 하였고 우리 모두를 다시 무사히 집으로 돌려보내신 것에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청년부 이진솔

우선 무사히 사역을 마치게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어린시절 하나님께서 의료선교를 향한 비전을 품게하셨습니다. 이후 간호학과에 진학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고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아래 한걸음씩 나아가고있는중입니다. 이번 선교는 의료선교를 비전으로 삼고있는 저에게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저의 역할은 몽골의 환자분들의 아픈곳을 여쭙보고 혈압과 체온을재는 작은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양으로 쓰임받을 수 있음에 너무나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저의 부족한 손길을 통해 몽골의 영혼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었길 바랍니다. 제가 한일은 작지만 큰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행하심을 기대합니다.